

‘나라를 치유하다’... 광주비엔날레 전시작 첫 공개

호주 여성작가 베티 머플러 작품
이숙경 예술총감독 직접 설명
‘비극적 역사’ 원주민 세계 표현
“물처럼 약한 자들의 승리 내포”



제14회 광주비엔날레 전시 작품이 첫 공개됐다.

이숙경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은 13일 광주 북구 비엔날레전시관 3전시실에서 열린 작품 전시 해포식에서 광주에 도착한 해외 작품 중 처음으로 호주 여성작가인 베티 머플러(Betty Muffler)의 작품 ‘나라를 치유하다’를 공개했다.

이 감독은 첫 공개 작품에 대해 “해당 작품은 비극적인 역사를 가진 원주민들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며 “검은 배경에 그

려진 추상적인 선의 집합은 외지인이 알 수 없는 흔적이지만, 선주민에게 지도이자 삶의 기록이다. 이번 광주비엔날레 주제와 일맥상통하는 작품 중 하나다”고 밝혔다. 베티 머플러는 호주 원주민 지역 ‘피찬차차라’ 출신 아티스트다. 이날 공개된 2018년 작품 ‘나라를 치유하다’를 비롯해 이번 광주비엔날레에 총 5개의 작품을 출품했다. 이 중 2개는 신작이다. 작가는 작품을 통해 “어떻게 함께 살아가며 어떻게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땅을 돌볼지”에 대해 질문한다.

이 감독은 작품 공개 이후 진행된 인터뷰에서 제14회 광주비엔날레 슬로건 ‘물처럼 부드럽고 여러께’에 대해 “물의 흐름은 작은 힘이지만, 결국 바위를 깨고 물길을 만든다. 이번 비엔날레를 통해 약한 자들이 만든 승리의 역사를 보여주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수자들의 힘은 결국 역사를 바꾼다. 그것이 정의라면, 결국 이기기 마련”이라며 “이는 광주정신과 맞닿아 있다. 부드럽고 강하지 않지만, 예술의 힘으로 승리의 의미를 보여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광주정신은 현재 진행형이라 했다. 이 감독은 “이란 히잡투쟁, 흑인 반폭력 운동, 미얀마 민주주의 투쟁 등의 비극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이 문제를 다룬다고 해서 정치적인 작품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사람 사는 이야기라고 봐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숙경 감독은 오랜만의 한국인 감독이기도 하다. 이 감독은 “2006년 이후 17년 만에 한국인이 메가폰을 잡았다”며 “1995년 제1회 광주비엔날레에 큐레이터로 참여했다. 이후 여러 국제 비엔날레에 참여하고 관람하면서 느꼈던 아쉬움을 해소하고 다양한 시도도 실천하려고 한

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비엔날레의 핵심은 관객 중심이다. 관람 동선 곳곳에 벤치를 설치한 것도 이 때문”이라며 “관광객들에게는 좋은 여행이, 광주 시민들에게는 좋은 날들이, 외국 관람객들에게는 한국 예술의 국제적 위상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14회 광주비엔날레 ‘물처럼 부드럽고 여러께(soft and weak like water)’는 오는 4월7일부터 7월 9일까지 94일간 개최된다. 해외 작품 반입은 이달 초부터 시작됐으며 작품 설치 작업은 이달 중순부터 본격화될 예정이다. 총 300여점의 작품이 전시되며 운송 예산만 13억여원이 소요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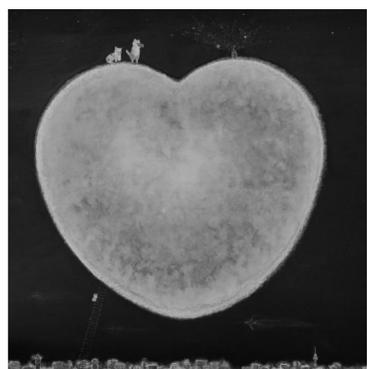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은 4개의 소주제별로 전시 공간이 구획되는데, ‘은은한 광륜(Luminous Halo)’은 광주의 정신을 영감의 원천이자 저항과 연대의 모델로 삼는

다. ‘조상의 목소리(Ancestral Voices)’는 전통을 재해석해 근대성에 도전하는 예술적 실천을 탐구적으로 조명한다. ‘일시적 주권(Transient Sovereignty)’은 후기 식민주의와 탈식민주의 미술 사상이 이주, 디아스포라 같은 주제와 관련해 전개된 방식에 주목한다. ‘행성의 시간들(Planetary Times)’은 생태와 환경 정의에 대한 ‘행성적 비전’의 가능성과 한계를 살펴본다. 마지막 5전시실은 전체 주제를 조망하는 작품이 설치된다.

한편 이숙경 예술감독은 홍익대 대학원에서 공부했다. 26세 때 최연소로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사가 됐고 이후 영국 에섹스대에서 박사과정을 밟았다. 2007년 영국 테이트모던 미술관 역사상 최초의 동양인 큐레이터가 됐으며 현재 테이트모던 국제미술 수석 큐레이터로 활동하고 있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

인간이 전하는 희망과 치유

금호갤러리 양정원 작가 개인전
인간 내면 유쾌한 동물성 재구성



양정원 작 Heart party II / 140x140cm / 장지에 채색/2022. 금호갤러리 제공

천진난만한 동물들의 모습을 담은 작품을 통해 힐링할 수 있는 전시회가 눈길을 끌고 있다.

양정원 작가의 개인전 ‘자정(自淨)의 시간- 두 번째 이야기’가 오는 29일까지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갤러리 1관에서 열린다. 양 작가는 지난해 금호갤러리 유스퀘어 청년작가 전시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전남대학교 미술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한 양정원 작가는 이번 전시를 통해 인간과 자연 그리고 생명의 존엄성을 탐구한 작품을 선보인다.

특히 작가는 현대사회의 자연 파괴, 기후 위기, 생명 약탈 등 자본주의 사회 속 경쟁과 탐욕이 팽배한 인간의 잔혹한 모습을 귀여운 동물의 형상으로 표현해낸다. 이는 인간에 의해 가장 피해받는 생명체인 동물을 등장시킨 것인데, 현대인의 삶을 천진난만한 동물의 모습으로 유쾌하게 재구성한 작가만의 세계관을 엿볼 수 있다.

한국화를 전공한 만큼 양 작가는 주로 전통 한국화 재료인 ‘장지’에 채색해 작품을 완성했다. 작업의 소재는 사랑스럽지

만, 작업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한번 더 인식하게 해준다. 작품에 느껴지는 밝은 분위기는 현실을 벗어나고 싶은 작가의 마음이다.

양정원 작가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함께 공존하고 공생할 수 있는 우리 사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상상의 공간을 그려냈다. 동물들의 순수함을 담아 동화적이면서도 따뜻한 유토피아적 세계를 표현했다”며 “관람객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힐링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시 관람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가능하며 입장 마감은 오후 6시이다. 전시 마지막 날인 오는 29일 수요일은 오후 1시까지 관람할 수 있다. **도선인 기자**

전통문화관 무등풍류던 ‘깨어났네, 개굴개굴’

광주문화재단 18일 봄맞이 행사
동화구연·무형문화재 전시 등

광주문화재단은 오는 18일 전통문화관에서 춘분 맞이 행사 무등풍류던 ‘깨어났네, 개굴개굴’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연은 △동화 구연 ‘돌아온 이야기꾼’ △해설이 있는 무형문화재 작품 전시 ‘무·형·담(無形談)’ △봄의 사랑과 그리움을 주제로 한 크로스오버 공연 ‘배일동×모나드 트리오’로 구성됐다. 공연과 함께 △개구리와 나비만들기 체험 △전래놀이와 민속놀이 △한복체험 등도 즐길 수 있다. 프로그램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약 3시간 동안 전통문화관 곳곳에서 펼쳐진다. 해설이 있는 무형문화재 작품 전시 ‘무

·형·담’은 오후 1시 입석당에서 진행되며 광주시 무형문화재 안명환 필장의 작품 전시와 시연 모습을 관람할 수 있다. 해설은 박종오 전남대 호남학연구원 학술연구교수가 맡아 전통 붓과 절기에 대해 설명한다. ‘무·형·담’이 끝나면 같은 장소에서 곧바로 동화 구연 ‘돌아온 이야기꾼’이 진행된다.

이날은 다양한 생명들이 함께 어우러져 공동체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동화 ‘개구리네 한술밥’을 구연한다.

현재 ‘돌아온 이야기꾼’ 참여 신청을 받고 있으며, 사전접수를 하고 체험까지 마친 어린이들은 친환경 굿즈 ‘보리씨앗 심기 키트’를 선물로 받을 수 있다. 오후 3시부터는 서석당에서 배일동 명

창과 ‘모나드 트리오’의 특별한 협연이 펼쳐진다. 협연은 ‘사랑과 그리움이 만났다. 봄을 맞아 꽃 피우다’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배일동 명창의 판소리와 피아노·더블베이스·드럼으로 구성된 재즈 연주자들의 크로스오버 음악을 감상할 수 있다. ‘배일동×모나드 트리오’ 공연은 유튜브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에서도 감상 가능하다.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은 이날 제로웨이스트 문화행사를 위해 일회용 홍보물 대신 방문객들에게 극세사 행주리플릿을 나눠줄 예정이다. 모든 행사는 무료. 자세한 내용 및 참여 신청은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팀(062-670-8502)으로 문의하면 된다. **도선인 기자**



광주역사민속박물관 제28기 박물관대학 개강

17일 수강신청 30일 시작
영산강 등 8개 강좌 마련

광주역사민속박물관이 오는 30일 제28기 박물관대학을 개강한다.

13일 광주역사민속박물관에 따르면 제28기 박물관대학 강좌가 오는 30일부터 5월 25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신창동 마한유적체험관 세미나실에서 진행된다. 박물관대학은 역사와 문화에 관심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열린다.

모든 강좌는 무료로 진행되며, 수강신청은 오는 17일부터 광주역사민속박물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wangju.go.kr/gjhf>)를 통해 가능하다(신청순 80명). **도선인 기자**

대표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한 박물관대학은 매년 다양한 지역 문화유산을 살펴보는 인문학 강좌 프로그램을 마련해 코로나 유행 시기에도 온라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운영됐다.

올해 박물관대학 강좌는 ‘영산강에서 만나는남도 역사·문화’라는 주제로 이뤄진다. 영산강을 따라 형성된 남도의 역사와 민속, 문화, 생태환경 등을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조망하고 문화자원으로서 영산강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해 기획됐다.

강의를 마친 후 마지막 시간에는 경남 창원군 일대 낙동강에서 문화유적 답사(참가비 별도)도 진행될 예정이다. **도선인 기자**

광주문화발전소 ‘문화통 plus 봄호’ 발간

함평노씨 600년 집성촌 특집

광주문화발전소가 발행하는 문화통 plus 봄호(통권 46)가 발간됐다.

장기시리즈인 전라도 문화수수께기에서는 무안 해제의 목탁바위의 비밀을 풀었으며 ‘전남의 마을 1박2일’에서는 함평군 학교면 복천리 함평노씨 600년 집성촌

두동과 장동마을의 유래와 문화유적, 출신 인물들을 집중 취재했다. 두동·장동에는 서당인 옥영재와 세효각이 남아 많은 인재를 양성해 법조계와 의료계 인사들이 많다.

문화화제로 KBS 진품명품 사상 도자기 최고 감정가인 25억원의 ‘청자매병’의 소장자와 소장 경위 등을 실었으며 전국

유일 수제탑 장인 조충제 옹의 ‘60년 통일생’ 발굴기사는 순천 출신으로 이순신 막하에서 50여회 해전에 참여한 연일정씨 정원명·정상명 군관 형제와 주변 인물들을 다뤘다. 그런데 이들 두 형제는 선무원종공신록·호남절의록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고발기사다.

이밖에도 광주에 국내외 유명빵집들을 모은 빵집과 카페거리를 만들자는 제안과 조용현 칼럼 ‘백운옥판자’ 이야기 등 읽을거리가 풍부하다. **도선인 기자**